



스물다섯번째 이야기

형제가 연합함을 꿈꾸며

[선교사 선교현장④ 조문상 선교사]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행 18:10하)

2000년 당시 중동의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년 넘게 살던 한 한국인 사업가가 그 곳에 삼국인(아랍과 서양인이 아닌 인종을 일컫는 말) 지하교회의 많은 목회자가 말씀 훈련이 필요하며 BEE Korea를 접촉했다. 본부에서는 싱가포르 지부에 있던 내게 카타르를 방문해 사역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했다. 나는 고개를 가우뚱하며 그 해 4월 카타르를 방문했고, 실태를 확인하던 중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다. 이슬람의 심장부인 그 곳에서 자신들이 그 곳에 왔던 돈을 벌겠다는 목적을 단숨에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 채, 교회를 세우고 믿음 생활을 억척스레 일구어 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하였고, 제대로 된 목회적 훈련도 없이 직장과 병행하며 목회하는 그들이 말씀으로 세워질 때 바로 그 이슬람의 심장부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예수님을 전파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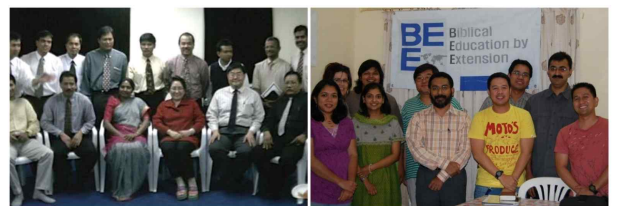


2000년 4월 카타르 BEE 소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행 16:9)

BEE 사역에 관해 설명하자 그들은 말씀 훈련이 필요하다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8월 사우디아

라비아를 방문해 몇 도시에서 BEE를 소개하자 역시 교회 지도자들은 환영했다. 중동의 두 나라에서 그렇게 시작된 첫 그룹에는 각각 인도와 필리핀의 두 나라 인종만이 참여했다. 아마도 그들은 심령이 가난했고 영어가 가능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BEE 사역이 이슬람의 심장부에서 시작되었다. 주기적으로 방문해 같이 시간을 보내며 필리핀인과 인도인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었다. 위험을 감수하는 신앙적 열정도 그렇고 대부분 그들은 한국인보다 훨씬 영어도 잘 구사했으며 열악한 환경에 잘 적응했다. 잘 훈련하면 그들은 좋은 동역자, 더 나아가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연합하여 뚝 있을 것 같았다. 실로 이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다.



중동의 첫 BEE 그룹 사무엘, 쉬나 선교사를 연결하심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사 6:8하)

카타르에 있는 케랄라 출신 인도인 그룹이 먼저 이 부르심에 응답했다. 인도자가 되자 그들은 카타르에 있는 자신의 가까운 신앙 동료에게 BEE를 소개하고 사람을 모았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자신의 고향인 케랄라에 BEE를 심기 시작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굶이지 않고 그들은 도전했다. 하나님의 절묘하신 섭리로

섬기던 교회에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이단으로 몰려 쫓겨난 이 그룹은 기도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전 교인이 BEE를 배우고 가르치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었다. 그들은 말씀으로 충만해지자 하나님 섬기기를 목말라 했다. 이슬람 국가의 심장부에서 어디에서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양육했다. 그들은 인도에서도 케랄라를 넘어 타밀나루, 우따르프라데시, 쾰까따로 연결 고리를 찾아 BEE를 퍼뜨렸다. BEE 학습서를 각 주의 언어로 번역하고 출판하고 계획을 짜고 있는 자신들의 금쪽같은 휴가를 BEE 세미나를 위해 사용하며 자비량으로 인도 각 지역으로 파고 들었다.



인도 첫 졸업식(케랄라 주)

급기야 2018년에는 자발적으로 BEE India를 설립해 정부에 등록하고 건물도 마련했다. 그리고 이웃 나라인 방글라데시도 개척했다. 2020년에는 처음으로 현지화를 이루고 독립적으로 BEE 사역을 할 수 있는 BEE 사역의 형제 나라가 되었다.



방글라데시 첫 졸업식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 27:17)

중동에서 BEE를 접한 사람은 인도인보다 필리핀인이 훨씬 많았지만 지속하지 못했고 재생산이 안 되었다(그들의 잘못만은 아니다.). 필리핀 본토도 한국에서 멀지 않아 여러 시도를 했지만 역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나마 오래 지탱한 부두안 그룹도 별다른 전략 없이 재생산이 산발적이었다. 그러던 중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목회하며 BEE를 배우던 띠또 목사가 카타르의 한 직장

이직하게 되었다. 나는 즉시 띠또 목사를 사무엘, 쉬나 선교사와 연결했다. 띠또 목사는 BEE에 더 깊이 발을 들인 후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직장을 잃고 필리핀으로 돌아와 목회를 시작하며 쉬나 선교사와 연결해 마닐라 남부 까비떼에서 BEE를 시작했다. 카타르의 인도 인도자들은 1년에 몇 차례씩 필리핀을 오가며 이 그룹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뻘어나갈 수 있는 사역지가 필요하기에 문화적 유사성이 있는 스리랑카 사역을 인계했다. 또한 어차피 필리핀도 오가니 영어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넘쳐나는 카타르에서 BEE Korea가 진행하던 필리핀 남부 부두안 사역도 맡으면 필리핀 전체에 균형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역 역시 이양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 인도인들의 필리핀 사역은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비전, 즉 BEE를 통한 세계 선교의 동역자로 세우는 비전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포석일 수 있다. 한 걸음 앞서 BEE 사역의 세계 선교의 파트너로서 성공적으로 사역하는 인도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필리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줌으로 필리핀인들도 같은 비전을 받아 BEE 사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BEE 세계 선교의 형제가 되어 연합하기를 꿈꾸어 본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

2023년 8월 27일 부두안 사역을 마치며...



[정리 및 편집 최선]

BEE 소식

1. 2023년 “나는 빛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빛진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자혜 있는 자나
야역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1:14).”**